

소의 유행열

지난 9, 10월에 걸쳐 전남, 북에서 발생한 소 유행열이 방역에 허점을 노려 강하게 타격을 가했다.

소의 유행열은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서, 흔히 유행열 감기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1867년 동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호주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 10~20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계속해서 2~3년간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의 유행열에 관해 가축위생연구소의 박근식소장과 담당연구관인 권영방박사의 얘기를 들어본다.



Q 소 유행열의 병인체는?

라브도바이러스과(Rhabdoviridae)에 속하는 유행열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며 그 바이러스의 형태는 길이 90~180nm 직경 60~80nm의 탄환형으로 185×75nm의 원추형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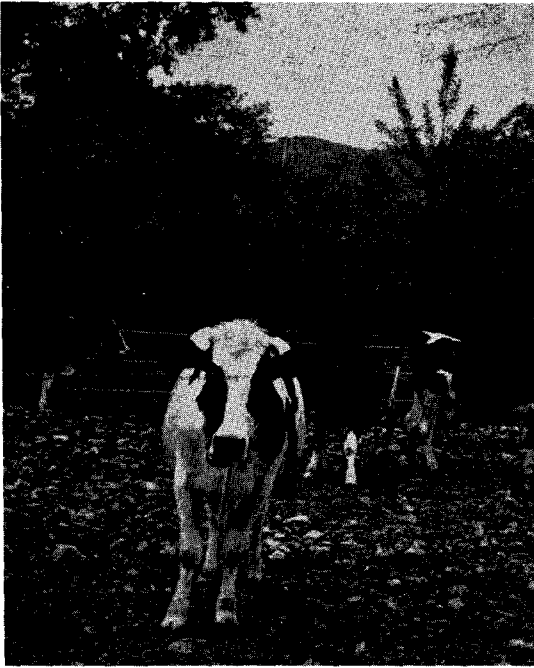
Q 유행열이란?

소의 급성 열성전염병으로 감염율이 매우 높고 고열(41~42°C)이 3~4일간 지속되다가 곧 회복되는 것이 특징으로서 일명 3일병이라고도 불리어 집니다.

Q 주요증상은?

보통 3~8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41~42°C)이 일어난 후 1~2일 또는 3~4일에 회복되는데 발열과 동시 호흡수가 3~5배 증가(정상 호흡수 15~20회)하여 보통 1분에 70~110회로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폐기종, 피하기종, 식욕부진, 반추정지, 근육진전을 일으키고 거품, 침을 흘리고 눈물, 콧물도 흘리면서 간혹 설사와 유산을 일으키기도 하며 관절이 붓고 관절통이 있을 때는 기립불능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해열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특징적 증상입니다.

특히 임신우는 유산을 하고, 착유우의 경우 산유량이 50%까지 저하하고, 피부를 만져보면 온도가 일정치 않고 귀와 다리는 차가우며 종모우라든가 영양이 좋은 소일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증세가 악화되면 인후와 식도가 마비되어 음식물을 삼킬 수 없게 되며 혈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병의 감염율은 35~100%이며 폐사율도 환축의 상태에 따라 1%내외로 알려져 있고 예후는 양호한 편입니다.

Q 발생시기와 전염방법은?

발생시기는 환절기인 8월하순부터 11월까지 이나 9월에서 10월 중순경까지가 최성기이다.

Q 과거 유행열 발생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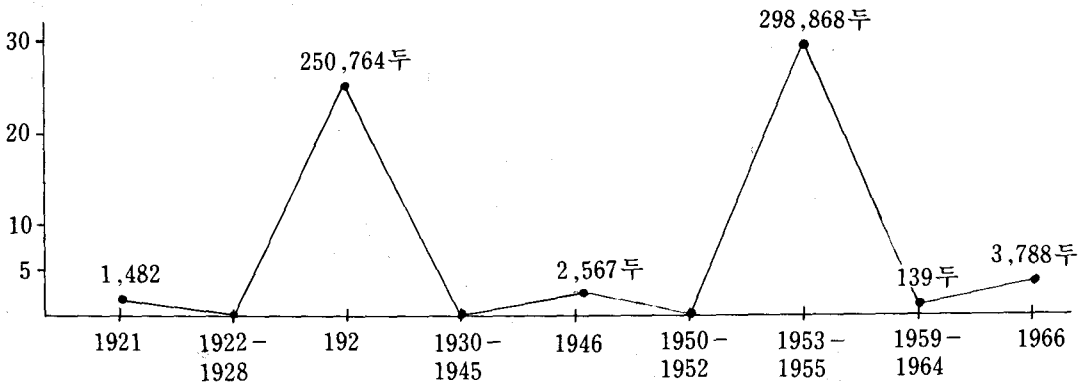
1921년부터 1966년까지 총 557,608두가 발생되었으며 1955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되었는데 총발생두수 298,868두중 1,116두가 폐사되었습니다.

Q 발생시기와 전염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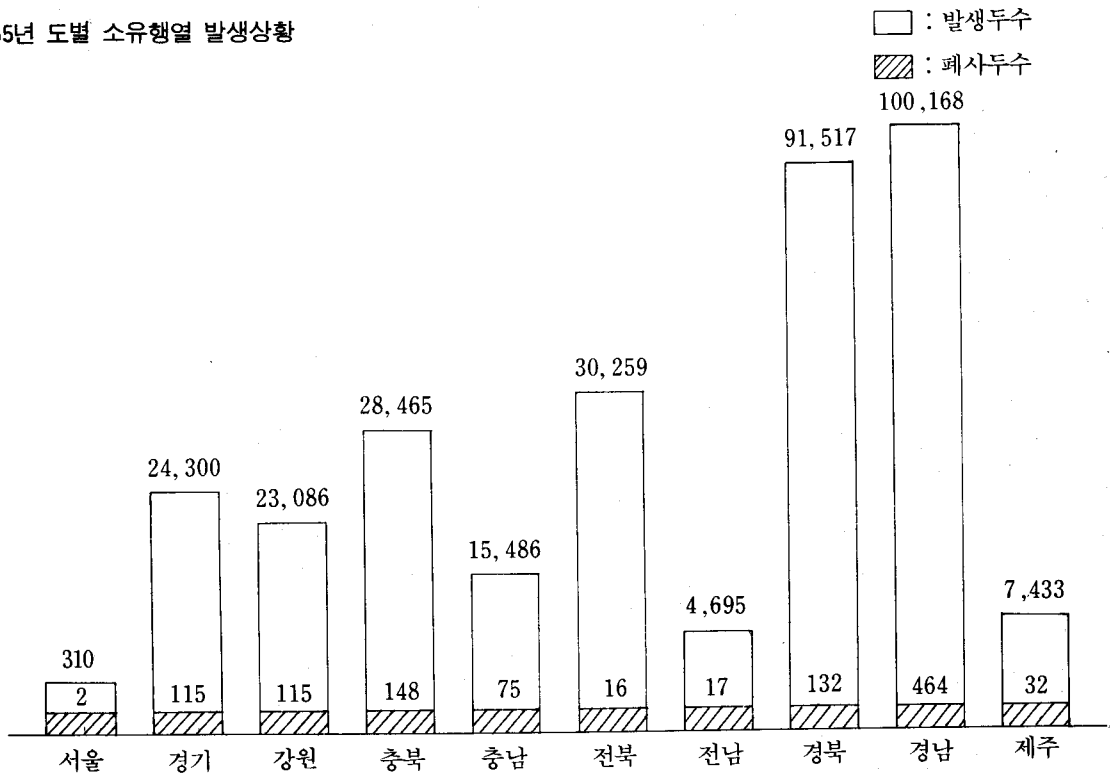
Q 금번 전남지방에서 발생한 상황은?

최초 9월 17일 전남 남부지역인 해남, 강진,

그림(I). 국내소 유행열 발생상황(1921-1966년)



1955년 도별 소유행열 발생상황



무안등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8일 보성, 함평, 승주, 나주까지 전파되고 있으며, 10월 15일 현재 발생두수 34,122두중 회복두수가 30,832두, 현환두수 3,238두, 폐사두수 52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젖소가 41두 한우가 11두가 폐사되었습니다.

또한 전북 남부까지 전파되어 10월 15일 현재 고창, 무안까지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소유행열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선 예방대책으로서 이 질병의 매개체인 흡혈곤충을 살충제, 기피제, 또한 방충망으로 구

제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제한 및 축사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우시장등 축우집합장소에 출할 때 특히 감염에 주의하고 축사내의 환기 보온 및 소독철저와 축우의 이동, 사역, 직사일광의 노출등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대책으로서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으나 대증요법으로 해열제로 높은 열을 내리어주고 열이 내려갈 때는 보온에 주의하여 자리깃을 깔이주거나 또는 담요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칼슘제제인 CDP 와 아미노산제제를 주사

하고 2차적인 세균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범위항생제 또는 설파제를 주사해주고 식욕부진이나 파행이(관절종장)이 있을 때는 강심이뇨제, 소화제 소염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는 환축의 발견즉시 관찰구역의 공개업 임상수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처치를 받는 것이 효과도 좋고 회복율도 빠릅니다. 환축은 치료와 동시에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격리하고 보온과 안전을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라는 가축은 우리의 형편으로 볼 때 아직까지 육용우로 쓰이는 것보다 역용우겸용으로 하기때문에 큰 재산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의 원인인 노령화, 부녀자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할 때 영양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비타민 미네랄등을 급여해 저항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소 유행열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온다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 의심이 간다면 곧 바로 각 시도 위생시험소에 문의하거나 의뢰를 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양축가 여러분의 손발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농/상/식/

소의 외모를 보고 병을 판단하는 요령

○ 배가 부풀어 오른 정도

식욕이 없으면서도 사료를 많이 먹었을 때와 같이 배가 부른 정도는 제1위 식체나 만성소화장애로 보고 배가 터질듯이 부어 오른 것은 고창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 똥의 색깔, 냄새, 설사, 피듬이 섞여있는지

큰소는 1.5-2시간마다 똥을 배설하는데 1일 총배설량은 30-50kg 정도이다. 똥의 색깔에는 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이 있으며 색깔에 따라서 설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검고 냄새가 심한 것은 부패한 사료가 원인이 되어 설사를 하는 경우이며,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설사하는 기간이 길어 장내벽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되는 경우와 콕시듐등 기생충에 감염돼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식욕의 정도

급속히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제1위 식체나 급성으로 나타나는 열이 높은 질병에서 나타나며 만성적인 위장병은 식욕에는 관계가 없다.

식욕이 있으면서 먹지 못하는 것은 입안이 헐었거나 너무 거친사료를 먹어 상처를 입었을 때 또는 무우, 고구마 등의 덩어리사료가 식도에 걸려 있을 때에 나타난다.

○ 되새김질은 사료 먹은후 30-70분에 시작된다.

1일 되새김질 회수는 6-8회 정도로서 한번 시작하면 40-50분간 실시하는데 건강한 소는 앓으면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되새김질에 이상이 생긴것은 대개 소화기질병에 걸렸을 때이며 열이 높거나 중독증상일 때도 나타난다.